

브리지스톤 타이어 후원, 2026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프리우스 PHEV 클래스 개막전 경기 결과

- 브리지스톤 타이어, 오네 슈퍼레이스 프리우스 PHEV 클래스에 3 년 연속 타이어 공급 및 장착 서비스 지원
- 디펜딩 챔피언 강창원 선수를 비롯해 2025 년 시즌 최종전까지 우승 경쟁 펼쳤던 이울 선수, 송형진 선수 2026 년 시즌에서도 치열한 접전 예상
- 송형진 선수, 예선에서 트랙 레코드 기록하며 폴포지션
- 강창원 선수 2026 시즌 개막전 우승

서울 (2026 년 4 월 20 일) — 전세계 타이어 및 고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브리지스톤의 국내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대표이사 김헌영, www.bridgestone-korea.co.kr, 이하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후원하는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프리우스 PHEV 클래스가 2026 시즌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지난 4 월 18~19 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2026 년 시즌을 시작하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프리우스 PHEV 클래스는 토요타 프리우스 PHEV 차량으로 경주하는 국내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원메이크 레이스. 지속 가능한 모터스포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친환경 레이싱 클래스로 브리지스톤이 2024 년부터 3 년 연속 참가팀과 선수들에게 타이어 공급 및 장착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5 년 종합 우승을 차지한 강창원 선수(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시즌 막판까지 우승 경쟁을 펼쳤던 이울 선수(L&T LEXUS), 송형진 선수(어퍼스피드)가 올 시즌 종합 우승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월 18 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개막전 예선에는 엔트리 18 대 중 16 대만 참가했다. 지난 시즌 3 위를 차지했던 송형진 선수가 2 분 22 초 266 을 기록, 스피드웨이 트랙 레코드를 경신하며 폴포지션을 차지했다. 디펜딩 챔피언 강창원 선수가 2 위, 김현일 선수(토요타 프리우스)가 3 위, 표중권 선수(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4 위, 그리고 이울 선수가 5 위로 그 뒤를 이었다.

19 일 열린 결승전에서는 강창원 선수가 24 분 27 초 720 으로 체커기를 받으며 시즌 첫 레이스 우승을 차지했다. 이울 선수가 강창원 선수와 2 초 840 차이로 2 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예선에서 트랙 레코드를 경신하며 폴포지션을 차지했던 송형진 선수가 3 위로 골인했다. 김현일 선수가 4 위, 이시이 히로타카 선수(레드콘모터스포츠)가 5 위를 기록했다.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프리우스 PHEV 클래스 2 차전 결승은 오는 5 월 24 일 전라남도 영암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파크 뮤직 페스티벌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